주말경제

Economy

은행·증권사 '금리경쟁' 직장인 유혹

월급통장 어디에 맡길까

대출자는 금리 혜택 은행으로
잔고 있다면 신개념 보통통장
금리는 증권사 CMA가 유리

'월급을 어디에 맡길까'

은행과 증권사간 월급통장 금리인상 경쟁이 가열되면서 샐러리맨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증권사들은 앞 다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리를 연 5%대로 올렸고 은행들은 각종 부가서비스에 최고 연 4%까지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월급통장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고른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수입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월급통장을 선택할 때 ▲은행 대출이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 감면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은행 상품 중에서 고르는 게 좋다. 대출은 있지만 잔고도 어느 정도 된다면 신개념 보통통장, 잔고가 많지 않다면 각종 수수료 혜택을 주는 월급통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대출도 없고, 예금잔액이 많다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 CMA가 적합하다. 주식·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CMA가 편리하다.

◇**CMA, 수익성+편의성에다 공모주 혜택까지**=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 4% 안팎의 이자를 준다. 동양종금증권 등은 최근 CMA 금리를 최고 연 5.3%까지 높였다. 여기에 은행 못지않은 부가 서비스와 함께 체크카드 기능까지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소득공제·마일리지 적립은 물론 휴대폰을 통한 잔액조회·자금이체 등 모바일뱅킹도 가능하고, 주요 놀이공원 입장료와 영화 관람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CMA가 유리하다. 주식매매 후 잔고가 남거나 주식매도 후 다음 투자를 기다릴 때 주식계좌에 현금을 방치하지 않고 CMA에 넣어두면 짭짤한 이자 수익이 더해진다. 증권사들이 CMA 고객에게 공모주 투자 혜택을 준다는 점도 매력이다.

CMA의 단점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도 얻을 수 없다.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 데도 CMA를 이용한다면 이자 수입보다 이자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상품이 유리**=은행들은 샐러리맨을 겨냥해 고금리의 신개념 보통예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통장 잔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연 4%의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아이플랜 대한민국힘통장'을 출시했다. 농협도 연 5% 금리를 주는 월급통장을 다음달 출시 예정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보통예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면 은행의 월급통장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들은 월급통장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0.2~0.4%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을 준다.

만약 은행에서 연 8%로 1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연 6.5%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비용만 730만원이다. 은행월급통장을 통해 각각 0.2%포인트씩 금리혜택을 받는다면 줄어드는 이자비용이 연간 22만원이다.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풍성**=CMA가 진화하면서 편리성이 강화됐지만 은행만큼 편리하지는 않다. 또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은행거래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많다면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은행들은 월급통장 고객에게 현금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CMA에 투자해 받는 몇 푼의 이자로 인터넷뱅킹 수수료(300~500원),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500~1천100원)를 내야 한다. CMA 이자와 은행 수수료를 비교한 후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수료 감면과 함께 예금에 대해 0.1~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다면 비과세에 우대금리 혜택까지 가능하다.

◇**예금잔액이 많으면 CMA, 적으면 은행이 나아**=은행 계좌에 쌓여있는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은행에 월급통장을 개설하는 게 낫다. 매월 300만원의 월급이 들어와도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생활비·자녀교육비 등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잔액이 100만원을 밑돌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 100만원을 CMA에 넣어두고 연 4.5% 이자를 받는다면 한 달에 3천750원, 1년에 4만5천원 꼴이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출이자를 낸다거나 각종 은행거래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한 달에 3천원을 넘는다면 CMA는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잔액이 300만원, 500만원을 넘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결국 증권사의 CMA와 은행의 신개념 보통예금을 놓고 잘 비교하는 게 좋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은행 월급통장·신개념 보통통장·CMA 비교

구 분	CMA	신개념 보통통장	은행 월급통장
취급회사	증권사	기업은행, 우리, 하나, 농협등 9월 출시	시중은행
금리	연 5% 안팎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4% 안팎	금액에 따라 0.1~3.3% 차등지급
원금보장	종금형 CMA만 5,000만원 까지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혜택	공모주 청약 가능 주식거래 가능	대출신청시 금리감면·적금 가입시 금리 우대 수표발행 수수료 등 각종 예금거래 수수료 감면	
대출	불가능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가능	
자동이체	제휴 은행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	월급이체·자동납부·온라인 뱅킹 등 가능	
주요고객	주식거래 많은 투자자 은행대출이 없는 고객 예금잔액이 많은 고객	은행 거래가 많은 고객 은행 대출이 있는 고객	통장 잔액이 적은 고객 은행 거래가 많은 고객

CD 연동 정기예금 금리상승 탓에 인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면서 CD연동 정기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가 고정돼 있는 일반 예금과 달리 CD 금리에 연동돼 있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CD 연동예금 상품은 보통 CD금리에 0.1%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결정된다. 3개월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 CD 연동예금 1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5.3% 정도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특판예금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하다.

신한은행의 '탑스 CD연동정기예금'은 3영업일 평균 CD금리에다 1년 만기는 0.1%포인트, 2년 만기는 0.2%포인트, 3년 만기는 0.3%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연 5.35%, 연 5.45%, 연 5.55%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오렌지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는 CD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고, 1년 만기 상품은 0.1%포인트를 더한다. 1년 상품은 현재 연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光銀 '광주 情 기프트카드' 선물용 인기

최고 50만원짜리 등 5종류
3회까지 충전해 사용 가능
한달 보름만에 25억 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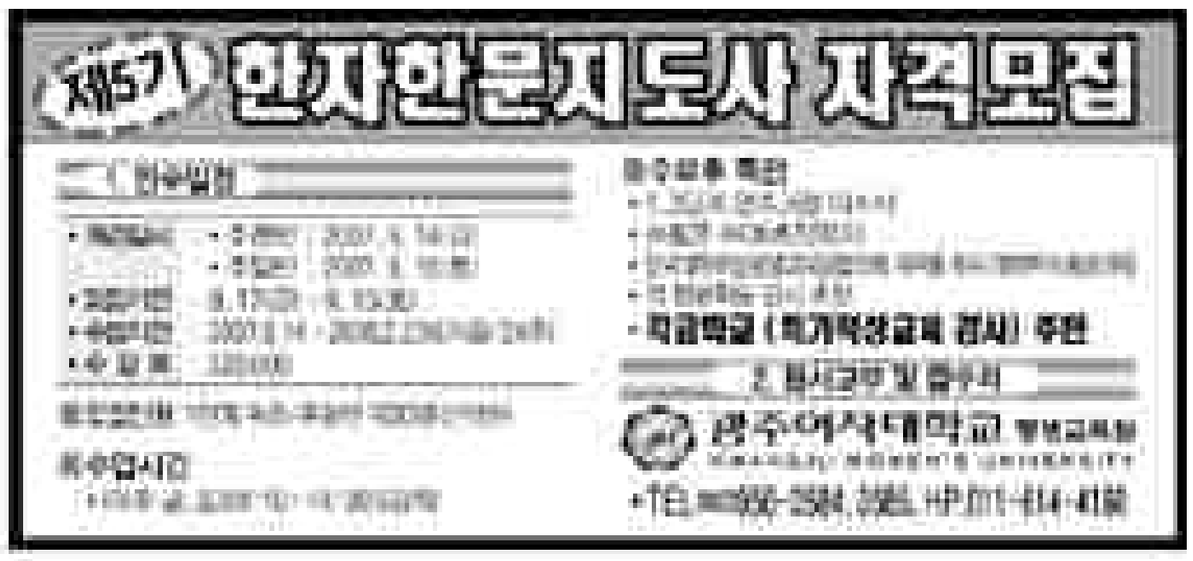
광주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광주 정(情) 기프트카드〈사진〉'가 발매 1개월 반만에 25억원이 팔려나가는 등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기프트카드는 5·10·20·30·50만원 등 모두 5종류로 3회까지 충전한뒤 상품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이나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며 카드금액(액면가)의 20% 미만 잔액 보유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즉 10만원 짜리 기프트카드로 8만5천원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만5천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는 고객에 대해 구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5만원 단위로 기프트카드를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용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